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지금 즉시 깨어나라

조주 스님은 대왕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마중하지 않고, 손으로 무릎을 치면서 말했다.

“알겠습니까?” 대왕이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저는 어릴 때 출가하여 지금은 완전히 늙어 버렸습니다. 손님을 보고도 선상에서 내려올 힘조차 없습니다.”

師見大王入院不起 以手自拍膝云 會麼 大王云不會 師云 自小出家今已老 見人無力下禪床

사전에 아무런 행동이나 말도 없이 선사가 대뜸 “알겠는가?” 하고 묻는 이 질문은 상승 법문이다.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고, 오묘한 도를 들어내 보인 것이며,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을 높은 단계로 이끄는 선지식의 상승 가르침이다. 남자들은 이 한 마디에서 다 털어내 버리고 모든 부처와 조사가 간 길을 가야 한다.

선사가 알겠는가하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바로 알고 ‘뜻이 너무 크다’ 하고 말하거나, 혹은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바로 박차고 나가버린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눈만 말뚱뚱 뜨고 있거나, 혹은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런데 설사 내방자가 모른다 해도 선사가 ‘알겠습니까?’ 하고 말했을 때 이미 도를 보인 것이므로 그가 국왕이라든 국왕의 은혜에 보답한 것이 된다. 조주선사는 110세의 노승이 되어 선상에서 내려가 왕

을 영접하지 못하는 대신 상승 법문 ‘알겠습니까?’를 선물하고, 끝이어서 왕에게 예의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떤 것에도 마음이 얽매어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사방의 모든 부처님을 사념하도록 해라.”

問 從上至今不忘底人如何 師云 不可得繫心 常思念十方一切佛

지혜와 덕이 부족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어렵다. 전생에 어쩌다 복을 약간 지은 자는 행동과 생각이 잘못되어도 한동안 승승장구한다. 왕은 그의 단점을 보지 못하고 가까이 둔다. 전생에 책을 읽거나, 수행만 열심히 한 자는 지혜는 갖추었지만 등용하지는 못한다.

지혜로운 자는 왕에게 나라의 일이 잘못되어간다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왕은 충언을 듣고 있는 것이 마치 쇠방망이를 삼키는 것과 같이 곤욕스러울 뿐이다. 충언에 응할 뜻이 전혀 없다. 충신은 뜻을 굽히지 않고 상소를 올리지만 소용없다. 어떤 경우는 왕이 분노하여 수없이 상소하는 충신에게 되레 벌을 내리기도 한다.

이러한 나라는 곧 멸망하고 말았다. 왕이나 신하나 지혜와 덕, 이 둘을 다 겸비해야 한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로

다. 지혜나 덕 중에 한 가지만 갖추면 새가 한쪽 날개로 비상하려고 퍼덕이는 것과 같을 뿐이다.

학승이 물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어떤 것에도 마음이 얽매어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사방의 모든 부처님을 사념하도록 해라.”

問 從上至今不忘底人如何 師云 不可得繫心 常思念十方一切佛

선사들은 래방자에게 대뜸 말한다. “그대는 이미 부처이다. 더 이상 중생으로 살지 말고 붓다로 살아가라. 지금 즉시 깨어나라. 만물은 부처의 분신이다. 두두물물(頭頭物物)은 깨어나지 못하지만 그대는 깨어날 수 있다. 주변을 돌아보라. 그대가 만든 세상이다. 모든 법은 그대가 만든 법이다. 그대는 원래 부처이다. 그대는 원래 행복하다. 만물을 향유하라.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라. 불조(佛祖)도 넘어가서 천상천하에 홀로 우뚝 서라. 그대는 사방의 모든 부처님의 분신이다. 그것을 항상 잊지 말라.”

불조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가르쳐주겠는가? 그러하니 지구상에서 오로지 불조만이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불조는 만대에 빛날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㉑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는 명령법 문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절창(絶唱)이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역본(석지현 옮김, 《숫타니파타》, 민족사)에서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라고 되어 있지만, 흔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구절로 더욱 익숙해져 있다. 도대체 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일까? 코뿔소의 코 위에 나있는 외뿔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는 말이 등장하는 《숫타니파타》의 시편들은 모두 41수의 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단 한 수의 시만을 제외한 40수는 모두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라는 구절을 결국(結局)로 삼고 있다. 일종의 각운(脚韻)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40수 연속 동일한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음악성의 성취와 함께 메시지를 강화하는 시적 효과 역시 거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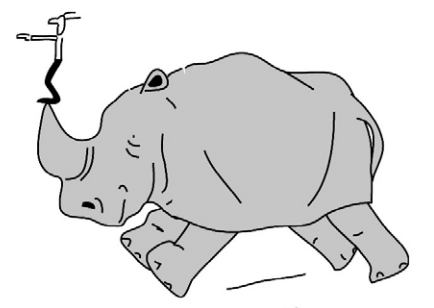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각운의 반복을 회피하는 시는 왜 그러한 예외를 두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일까? 그 예외적 계승인 45송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수긍하게 된다.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난다면 /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므로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과 무리지어 함께 가거라.” 그렇다. “그들과 무리지어 함께 가거라”는 말씀은 정히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는 말과 서로 상보적(相補的)으로 읽혀야 한다. 46송을 함께 읽어보자.

“그러나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나지 못하면 /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돌아가듯 /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 그렇다. 이제 모든 의혹은 풀렸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회적 삶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지성적이고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 그런 고상한 벗을 가까이 하라”(58송)고 말한다. 우리의 삶은 현명하고 고상한 벗의 인도가 없다면 결코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이룰 수 없(37송)게 된다. 그 어느 쪽이나 문제이긴 마찬가지다.”

그럴 때 우리는 집착과 다툼을 모두 다 버리고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저 광야’와 대비되어서 ‘코뿔소의 외뿔’은 적적한 외로움의 이미지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혼자서라도 결코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고 두박두박 걸어가는 반항자(反抗者)의 이미지를 주기도 한다.

이제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 가거라”는 이 말씀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상처입은 많은 가슴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뿔소의 외뿔처럼 혼자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외롭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외로움을 직시하면서, 또 즐기는 데서 나 자신의 진정한 얼굴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14>

올바른 노력은 근면과 용기 필수

팔정도-⑥정정진(正精進)

‘정진(精進)’은 불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말이다. 특히 수행생이나 고승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많이 들어본 말일 텐데, 정진에는 정신을 집중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간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즉 ‘목표를 향한 노력’을 뜻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 목표가 사람을 해하는 악한 목표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노력도 올바르게 해야 한다.

팔정도의 여섯 번째 수행덕목인 정정진(正精進)은 올바른 노력을 뜻한다. 불교에서 올바른 노력에 의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정진에 태만이 있을 수 없다. 정정진 속에는 근면한 자세가 필수적으로 포함돼 있다. 또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치의 물러선 없는 각오를 필요로 한다. 정진의 산스크리트어 비야야마(vyayama)에는 노력외에 경쟁, 투쟁, 고투 등의 의미가 포함돼 있다. 즉 정진에는 치열한 노력을 통해 목적을 쟁취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이다. 여기서 경쟁하고 투쟁하는 대상은 다른 아닌 자신의 마

음을 가리킨다. 그래서 출가자가 수행에 매진할 때 용맹정진(勇猛精進)한다는 말을 쓰게 된 것이다. 마치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적과 맞서 싸우는 각오로 수행에 임하는 자세를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진은 용기를 갖고 바르게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정진은 궁극적으로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이지만, 일반 중생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속세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정정진은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경제적 건강적인 모든 면에서 선(善)을 증대시키고, 이에 반하는 악(惡)을 멸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을 가리킨다. 여기서 선과 악은 반드시 도덕적인 선악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치와 경제, 개인적으로는 몸의 건강 등에 관해서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은 선이며, 나쁜 작용을 하는 것은 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 선악에 관해서 《중아함경(中阿含經)》 및 《잡아함경(雜阿含經)》 등에는 정정진을 사정근(四正勤)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정근은 네 가지 바른 노력으로, (1)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절대로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한다[律儀斷], (2) 이미 일어난 악은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斷斷], (3)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善)은 생겨나도록 노력한다[隨護斷], (4) 이미

일어난 선은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修斷] 등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이 사정근을 건강에 적용시키면, (1) 건강에 나쁜 과일·과식과 불규칙한 생활 등의 나쁜 습관이 아직 없다면 이후에도 이러한 안 좋은 습관이 몸에 배지 않도록 노력한다, (2) 건강에 해가 되는 나쁜 습관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몸든 나쁜 습관을 제거하도록 노력한다, (3)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면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4)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이 이미 있다면 이것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위와 같이 사정근을 건강에 적용시켜 지켜간다면 건강은 점차 증진해 장수를 누릴 것이다. 이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사부대중 모두가 정정진을 바탕으로 생활에 간다면 각자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정정진은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 모두에 적용된다.

이처럼 정정진은 팔정도 중에서 몸소 하는 실천을 중요시 여기는 덕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근면과 용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사정근을 기반으로 선과 악을 정확히 판단한 후에 정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지붕공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 종합반 : (1)매주 목요일 (2)개월과정 (2)훈련식 교육임으로 하시라도 등록 가능함
- ◆ 특 해 : (1)3인이 함께 등록할 경우 원하는 일시에 맞추어 드림 (2)개인지도, 출장지도 가능함 - 직접 상담 결정함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교명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7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국민 011-24-0405-181 | 농협 217049-51-010252 예금주 : 김철희